

德裕山 野營場계곡의
乘用車는 누가 치워야 하나 ?

작년 10월에 현지 X X 조사를 위해 국립공원 德裕山을 찾았을때 野營場內의 계곡 10미터 가량되는 낭떠러지에 승용차로 보이는 자동차 1대가 굴러 넘어져 있었는데..... 지난 2월 21일에 갔을때도 이 자동차는 그대로 계곡에서 잠자고(?) 있어 아무리 관리소와는 떨어져있을 망정 몇달동안에 손도 안쓰고 국립공원의 계곡을 폐차장처럼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더욱이 야영장 인근의 계곡이며 도로망이 잘되어 있는 곳인데 起重機車를 움직일만한 사람하나도 없는 무슨 딱한 사정이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7월 1일에 발족되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선물(?)로 넘겨주겠다는 것인지?

馬耳山 말 이마에 포장마차
이번에는 休憩空間 만든다고 ?

全北 鎭安郡 馬耳山(높이 673m, 面積 16.9km²) 道立公園은 銀水寺, 金唐寺를 비롯하여 龍岩洞門, 天皇門, 溫風穴 등 文化財와 뛰어난 景觀등으로 많은 探訪客이 年中 모여들고 있는데..... 특히 馬耳山의 頂上이며 양쪽으로 말귀(馬耳)처럼 뾰족한 돌가운데에다 누군가가 포장마차를 차려 茶와 스낵類를 팔고 있어 한심한 일이라고 뜻있는 사람들이 개탄.

아무리 돌로된 말의 머리라고는 하나 馬耳山의 “심볼”이라 할 수 있는 馬耳의 眉間에다 「포장마차」를 차리도록 放置한 관리당국도 무언가 잘못생각했던 것이 아닌지?

自然훼손의 위험이 현저한 馬耳사이의 「이마」에까지 사람이 올라간다는 自體마저도 不當하게 여겨지는데도 不拘하고 管理所측에서는 오는 5-6月頃에는 포장마차를 撤去시키고 이번에는 여기에다 「과골러」(藤柵)를 세워서 사람을 쉬게하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한다.

지난 2月 22日 현지를 답사한 L교수 일행은 이같은 관리소측의 말을 듣고와서 「사람이 올라가는 것 自體도 문제삼아야 마땅한데 말의

머리에다 休息공간을 만들겠다는 着想은 位置上 크게 잘못된 일이다」고 나무라면서 휴식공간의 位置를 再考해야한다고 力說.

쉬는 것도 좋지만 何必 말의 머리위에서 선다는 것은 自然景觀保存을 위해서도 그릇된 着想이 아닌지.

한국인이 美野生系 파괴?
美誌, 곰, 사슴 남획한다고.....

월간 캘리포니아誌는 3月號에서 在美한국인들이 兪담이나 곰발바닥, 녹각등의 채취를 위해 美國에서 곰, 사슴등을 不法으로 남획하여 미국의 야생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크게 보도. 이 美誌는 일단의 한국인 不法사냥꾼들이 흑곰한마리를 잡아 현장에서 兪담(쓸개) 하나를 꺼내 들어보이는 사진과 남획현장 스케치를 보도하면서 곰쓸개가 파운드당 5천달러까지 去來되고 있다고 썼다. 이 잡지는 지난 15년간 수십만명의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와서 캘리포니아 야생동물들을 서서히 멸종시키고 있다고 主張하여 교민들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 또 이 잡지는 한국인을 포함한 亞細亞人들은 곰쓸개를 사람의 長壽와 精力에 좋다며 코카인처럼 비싼값에 去來하고 있으나 西洋의 학자들은 「터무니 없는 얘기」로 일축하고 있다고. 미국의 주요 自然保護단체들은 그동안에도 여러차례 주로 한국인들을 中心으로한 不法사냥을 指摘하면서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한국한약방들의 不法藥材買入事實을 수사해줄 것을 當局에 促求했고 몇명이 검거되기도 했다는 것.

교민들은 「一部 몰지각한 한국인들의 불법 남획으로 전체교민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미국에만 오면 덮어놓고 곰쓸개만 찾는 많은 여행객들도 自省해야 한다」고 개탄하기도 한다.

이 잡지는 현재 캘리포니아에 약 1만 2천~1만 5천 마리의 흑곰이 있는데 1년에 1천마리량 남획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聯合·조선일보>